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 이벤트 공개

마스터클래스·영특한클래스·전주톡톡·이화정의 전주가오디오 등 온·오프라인 진행

오는 29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올해의 프로그램 이벤트를 확정, 발표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한 영화제를 운영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오프라인 상영을 극장 전체 좌석의 30% 수준으로 운영하고, OTT 플랫폼 웨브에서 온라인 상영을 실시한다. 또 마스터클래스와 대담, 토크 등 각종 프로그램 이벤트는 극장 상영관과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온라인 프로그램 이벤트 현장.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 이벤트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작가와 만나는 '마스터클래스'부터 전주국제영화제만의 개성을 담아낸 기획 토크 '영특한클래스'와 '전주톡톡', 전주국제영화제 네이버 오디오를 탑재 '이화정의 전주가오디오'와 '이화정의 전주가오디오(보이는 라디오)'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벤트로는 마스터클래스와 영화와 함께하는 특별한 클래스, 영특한클래스가 준비됐다. 마스터클래스에서는 올해 전주에서 <공중보전>을 선보이는 캐나다의 감독 드니 코데의 영화 세계를 살펴보고, 한국 최초의 여성 실험영화 그룹 '카이두 클럽'을 이끈 장본인이자 '스페셜 포커스: 인디펜던트 우먼'의 게스트인 한옥희 감독이 나서 자신의 영화 인생을 이야기한다. 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케이사운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다. (기생충: 흑백판) (짜페)를 각각 '사운드 디자인과 내러티브', '소리의 창조, 폴리의 세계'란 주제로 살펴보는 이 시기에는 최태영 사운드슈퍼바이

저, 양대호, 문재홍 폴리아트스트가 함께한다. 영특한클래스에서는 개막작 <아버지의 길>을 비롯한 주요 상영작을 상영한 뒤, 프로그래머와 평론가, 영화학자, 감독, 영화기자들이 무대에 올라 해설할 예정이다.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오디오를 탑재 '이화정의 전주가오디오'에서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벤트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벤트에서는 22회 상영작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적 이슈와 주목할 만한 담론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온라인 영특한클래스에서는 미니 픽션 '월드시네마: 스포츠는 여성의 것'을 통해 도전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김하나, 황선우 작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다혜 기자가 <어른이 되면> 등을 연출한 장혜영 감독(국회의원)과 함께 '스크린에 비친 당신의 이야기'라

는 주제로 개인의 꿈과 희망을 둘러싼 사회적 제약과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황덕호 음악평론가와 전진수 프로그래머가 출연하는 '재즈의 길을 찾아서', 문성경 프로그래머가 김소이 감독, 손수현 배우와 함께하는 '진밀한 위험을 넘어' 등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배우와 감독 등이 출연하는 전주톡톡에는 공승연, 유다인, 공민정, 심탈기 등 독립영화계 스타들이 참여한다. '아트 스페셜: 새로운 바람'에 초청된 김정인, 정소영, 황승기 감독은 <우리집>, <우리들>의 윤기은 감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프로그램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onjifes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주국제영화제 SNS 공식 채널에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양은경 기자

전주문화재단, '탄소, 과학과 예술' 특별강연회

26일·30일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서

(재)전주문화재단(대표 백옥선)과 전북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단장 고영호)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1 탄소, 과학과 예술 프로젝트' 개최에 앞서, 특별강연회를 오는 26일과 30일 오후 2시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탄소과학 기술력과 문화예술이 협업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미래의 예술소재로서의 탄소의 가능성을 도시·공간·문화예술 인프라에 접목하고 융합 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 탄소 매체의 가능성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의 과학적 탐구 과정과 성과를 예술적 실천과 결합하는 탄소과학·예술 융합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이번 강연회에서 예술 작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 탄소복합 소재 가이급 특허를 낸 정정원(The WON 대표, 2017년 세계 신지식인)은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조소너 명칭에게 관심을 사, 전라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을 역임하고 탄소섬유 복합재 공명봉으로 형성된 가이급 특허권리자다.

두 번째 강연자는 정밀기계공학을 전공한 조성우(씨디엘 대표)는 강철보다 강하지만 알루미늄보다 가볍다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이라는 복합소재로 헬로와 바이올린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실제적으로 탄소섬유의 가공법과 제작 전반에 대한 사항을 예술가들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건축가이자 작가인 세 번째 강연자 노일훈(영국건축학교AA Diploma, 영국 왕립 미술관 산업디자인 석사)은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신소재 탄소섬유로 작품을 제작했다. 탄소섬유를 끈으로 삼아 꼬아 엮는 전통 지승공예 방식으로 제작해 프랑스 퐁피두 센터에 '라미 벤치(2013)'가 소장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작가의 작품 제작 방법을 예술가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강연회는 신소재인 탄소에 관심 있는 지역 예술가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좌신청은 전화접수로 선착순 30명까지 받을 예정이다. 문의는 참가기획팀(063-212-8801)으로 하면 된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첨단 소재인 탄소 매체를 활용한 특별한 예술 작품을 제작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도전하는 예술가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상설공연 목요다락

29일·5월 매주 목요일 예원당서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다양한 장르의 전통공연예술로 즐거움을 나누는 상설공연 '목요다락'을 오는 4월 마지막 목요일과 5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4월 마지막 주와 5월 첫 주에 공연되는 '목요다락' 무대는 진화하는 우리음악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두 단체의 무대로, 전통음악과 타 장르의 협업으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나간 월드뮤직그룹 '더 튠'과 가장 전통적인 창작방식으로 새로운 음악을 내어놓는 '바라지'의 무대가 펼쳐진다. 더 튠의 무대에서는 전통 타악기와 해금, 신디사이저, 보컬, 퍼커션, 피리, 태평소 등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진 뮤지션 그룹으로, 한국전통음악을 재해석 하여 실험적인 창작무대를 선보인다.

바라지의 무대에서는 2015년 발매한 정규 앨범 '비순'에 이어 이번에 선보이는 '업고출신'은 전통음악의 정수인 판소리와 산조, 무속악 속으로 들어가 가락을 추려 다듬고 새로 꾸며 선보이며, 이밖에도 휘산조, 생!사고리, 생!사고리2, 진혼, 만선, 별신축원을 차례로 연주한다.

예약은 카카오톡채널과 전화(063-620-2329)로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 마한문화 가치 재조명

'마한문화권에서 바라 본 익산' 학술회의 개최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한의 중심 익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22일 '마한문화권에서 바라 본 익산'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오래전부터 익산마한문화권이 마한의 중심지로 주목받아 온 만큼 학계차원의 문헌과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통한 익산 마한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표자, 토론자 등 관계자 20여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그 외 관계자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했으며 총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최완규 전북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찬규 전 단국대학교 교수와 한수영 호남문화재연구원 박사, 정수옥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김중엽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발표를 맡았으며 김병남 전북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우선 1부에서는 '중원의 남천과 익산 금마명칭의 내력', '마한의 시작과 만경강, 그리고 익산'을 주제로 문헌과 고고학적 관점의 중원 남천지로서의 익산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익산지역 마한문화와 물질문화양상', '마한분묘에서 본 익산분묘'에 대한 발표로 익산지역 마한 물질문화와 분묘의 현황·특징을 밝혔다.

이어 종합토론은 최완규 최완규 전북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을 중심으로 마한문화권에서 익산이 지니고 있는 위치에 대해 발표자와 토론자 간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법의 마한역사문화권이 전남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익산 중심 전북마한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북마한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원일 기자

군산근대미술관, 이승우 화백 '꽃창살 앞에 핀 망초'展 개최

군산근대미술관(구 18은행)은 오는 7월 25일 까지 서양화가 이승우 화백 초대전 '꽃창살 앞에 핀 망초'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승우 작가는 군산 대이원에서 출생해 원광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장을 역임했으며, 개인전과 초대전 33회, 단체전 500여회의 전시 경력과 서울대, 인하대, 군산대 등에서 30여년간 출강 및 미술을 찾아서 <색채학> (아름미술) 등의 도서 저자와 미술 평론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이 작가는 2020년에는 전주, 익산, 양평, 고흥

에서 개인전만 5회 개최하는 등 칠순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원로작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 작가의 작품활동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회고전의 성격으로 총 85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전시작품은 '꽃창살로부터'와 '망초의 계절'이라는 테마로 표현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 완성된 '모여살기'와 설치작품 '이내 사라질 당신의 초상' 등 적지 않은 세월을 지나는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